

대전역 광장에서 전국에 알린 39회 지용제



39회 지용제 홍보중인 옥천문화원 식구들

푸른 신록이 짙어가는 5월, 옥천문화원이 39회 지용제를 앞두고 대전역에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며 전국 방문객들에게 지용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홍보활동에는 김대훈 옥천문화원장을 비롯해 김묘순 편집위원, 문화원 직원들 그리고 옥천군 문화관광과 김현숙 과장 등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대전역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직접 39회 지용제 리플릿을 배부하며 축제 일정과 주요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특히 대전역은 전국 각지의 이용객들이 모이는 교통 중심지인 만큼, 지용제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의 장이 됐다.

현장에는 “시골벽적 문학축제”라는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참가자들은 밝은 표정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용제의 의미와 매력을 소개했고, 리플릿을 받아든 시민들 또한 큰 관심을 보이며 행사 일정에 귀를 기울였다. 대전역 광장 곳곳에는 따뜻한 인사와 웃음이 이어지며 축제를 앞둔 기대감이 한층 고조됐다.

또한 옥천문화원과 옥천군은 이번 현장 홍보와 함께 대전시

주요 전광판 광고를 통해서도 39회 지용제를 적극 알리고 있다. 대전 도심 전광판에는 지용제 일정과 축제 홍보영상이 송출되며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축제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문학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용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39회 지용제는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상계체육공원과 지용문학공원, 구읍 일원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대표 문학 축제로 자리잡은 지용제에서는 정지용 시인의 문학세계를 기리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 문학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문학 애호가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김대훈 옥천문화원장은 “지용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넘어 전국적인 문학축제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옥천을 찾아 정지용 시인의 문학정신과 함께 아름다운 봄날의 축제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으로 보는 39회 지용제 첫째날

편집위원 / 천기석



스물네 번째 학생 그림그리기 대회가 햇살이 포근이 내려앉은 지용문학 공원에서 약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펼쳐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하늘에 울려 퍼지고 작은 손끝에서는 저마다의 꿈과 상상이 그림으로 피어났다.



충북도립교향악단의 공연은 웅장한 리듬을 타고 공간 가득 울려 퍼졌다. 바람결을 따라 전해지는 선율은 사람들의 감성에 스며들어 잔잔한 울림과 오래 남을 감동을 선사했다.

첫 번째 짜짜공 동요축제가 네 팀의 맑은 목소리와 함께 주무대에서 막이 올랐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연습과 설렘은 무대 위에서 고운 선율로 피어났고, 아이들은 저마다의 노래에 꿈과 웃음을 담아 마음껏 펼쳐졌다.



사진으로 보는 39회 지용제 둘째날

편집위원 / 김묘순

39회 지용제가 여름처럼 뜨겁게 피어났다. 시인의 숨결이 머문 고장, 옥천에는 오월의 햇살과 함께 시와 음악, 사람의 온기가 어우러지며, '향수'의 정서가 살아 숨 쉬는 나흘간의 시간이 펼쳐졌다. 문학은 무대가 되고, 일상은 축제가 되어, 지용의 언어는 다시 오늘의 목소리로 되살아났다.

5월 14일, 축제의 서막을 여는 24회 학생 그림그리기 대회, 1회 짜짜공 동요축제, 충북도립교향악단 공연, 시골북적 콘서트 등이 이어지며 축제의 문을 활짝 열었다.

15일에는 36회 전국시조창 경연대회와 16회 옥천동요제, 지역예술인 공연이 펼쳐졌으며, '지용의 향기, 평화로 물들다', '세월을 입고 시간을 걷다' 등 주제 프로 그램과 25회 옥천 국악한마당이 더해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풍성한 무대를 이루었다.

16일에는 줌바페스티벌 공연과 '옥천문화 예술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시인의 정원'이 관람객의 참여를 이끌었고, 9회 정지용 국제 문학심포지엄이 개최되어 문학적 깊이를 더했다. 또한 향수사진 공모전과 옛날 흑백사진 공모전, 5회 정지용 캘리그래피 공모전 시상식이 이어졌으며, 32회 지용 신인문학상, 5회 정지용 한인문학상, 38회

정지용문학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어진 시노래 콘서트와 축하공연, '하늘에 쓴 지용시' 불꽃놀이 밤하늘에 시의 여운을 수놓으며 축제의 절정을 장식했다.

17일에는 25회 전국 정지용 백일장과 시상식, 문화마당 축제, 풍금 '정지용' 이야기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향수 창작 가요제와 13회 정지용 전국 시낭송 대회, 북 콘서트, 23회 군민 한마음 노래자랑과 향수콘서트가 이어지며 나흘간의 여정을 따뜻하게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행사기간 동안 다양한 상설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문학 행사와 공연이 곳곳에서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문화적 향유의 시간을 선사했다. 다만 지면의 한계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소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교동호수에서 낙화놀이가 화려하게 지용제를 빛내고 있다



전국 시조창 경연대회가 36회를 맞이하여 옥천 교동호수 특설무대에서 옥천시조협회 주관으로 펼쳐졌다.



김승애 작가가 '시인의 정원'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



옥천청년연합회가 상행시를 즉석에서 지어 장원을 뽑는 과거시엄을 시행했다. 행사 관계자와 심사위원 그리고 당선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있다.



동요제 시상식에서 김대훈 원장이 16회 옥천동요제를 축하하며 어린이들의 정지용과 고향을 향한 꿈을 키워주고 있다.



옥천국악협회와 국악인 박애리와 함께하는 25회 옥천국악한마당이 15일 저녁 7시 지용제 본무대에서 열렸다.



옥천문인협회가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시화전을 열고 있다.



오종란 시낭송가가 지용제가 앞에서 시낭송을 하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39회 지용제 셋째날

편집위원 / 정회원

시인의 정원-청소년 문학교류

“풀꽃1”으로 잘 알려진 시인 나태주와 前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시인이 참여자들과 가까이에서 시와 삶을 이야기 하는 토크행사를 진행하였다.



하늘에 쓴 지용시(불꽃놀이)

39회 지용제의 대미를 장식한 순간. 다가올 40회 축제를 기약 하며, 옥천의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불꽃놀이 행사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32회 지용 신인문학상 시상식

동양일보와 옥천문화원이 주관하는 지용신인문학상은 가작이나 우수상 없이 단 한 명의 당선자만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올해는 총 342명의 지원자가 2,055편의 시를 출품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며,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최유정 씨의 작품 <포도밭의 안부>가 단 하나의 당선작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사진으로 보는 39회 지용제 넷째날

편집위원 / 김억수

38회 정지용문학상 시상식

“인간은 결국 서로의 말로 상처 입고, 또 서로의 말로 살아 간다.” 한국 현대시를 대표하는 원로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천양희 시인의 「말의 힘으로」가 38회 정지용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5회 전국 정지용 백일장이 지용제 주무대에서 열렸다. 옥천문인협회(회장: 배정옥)가 주관한 이 행사에서 정지용의 시 정신이 빛나는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5회 미주 정지용 해외문학상 시상식

옥천문화원이 주최하고 재미시인협회가 주관하는 미주 정지용 해외문학상은 당선된 해외 한인 시인이 직접 정지용 시인의 고향인 한국 옥천을 방문해 지용제 무대에서 상을 받는 뜻깊은 자리에서, 올해는 이도미 시인의 <Dry lake bed>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옥주문화동호회가 지용제 주무대에서 ‘향수창작가요제’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 수상자들이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13회 정지용 전국시낭송 대회가 교동호수 특설무대에서 옥천지용시낭송회 주관으로 열렸다. 좌로부터 옥천군 이현창 옥천군수 권한대행, 대상 송민정 수상자, 김대훈 옥천문화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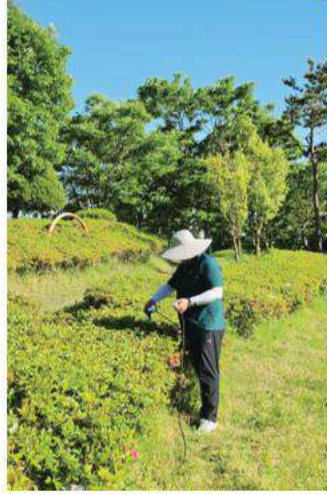
39회 지용제를 앞두고 문화원 직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준비 작업에 힘을 쏟았다.

푸른 녹음이 짙어진 행사장 일원에서는 잡초 제거와 조경 정비를 비롯해 시설 점검, 전기 설비 확인, 안전·소방 점검 등 다양한 현장 작업이 이어졌다.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지용제 기간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사장 환경정비뿐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관리에도 세심한 점검을 진행했다.

오는 39회 지용제는 상계체육공원과 지용문학공원, 구읍 일원에서 개최되며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정지용 시인의 문학세계를 선보였다.



39회 지용제 현장에서 평가위원 간담회 가져

39회 지용제 행사 기간 중 김대훈 옥천문화원장과 평가위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행사 진행 상황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와 함께 방문객 편의, 축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분위기와 운영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지용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 문학축제로 자리매김한 지용제가 지역 문화와 문학을 함께 알리는 축제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과 논의가 이어졌다.



부천문화원 지용제 방문

부천문화원, 39회 지용제 찾아 옥천 방문

부천문화원 관계자들과 문화탐방단이 39회 지용제를 맞아 옥천을 방문해 문학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축제 현장을 함께 했다.

부천문화원 탐방단은 정지용 생가와 지용문학공원, 구읍 일원 등을 둘러보며 지용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옥천의 문화자원을 체험했다.

탐방단은 지용제 행사장 입구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축제의 의미를 함께 나눴고, 현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체험행사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정지용 시인의 문학정신과 옥천의 정겨운 지역문화를 직접 느끼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옥천문화원과 부천문화원은 오랜 기간 문화교류를 이어오며 서로의 지역문화를 공유하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문 또한 양 지역 문화예술 교류의 폭을 넓히고 우호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서귀포문화원, 지용제 방문

서귀포문화원, 39회 지용제 찾아 옥천 방문

양병식 서귀포문화원장을 비롯한 서귀포문화원 임원진이 39회 지용제를 찾아 옥천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임원 도외 역량강화연수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서귀포문화원 임원진은 지용제 행사장과 정지용 생가, 지용문학공원 등을 둘러보며 대한민국 대표 문학축제의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참석자들은 지용제 행사장 주무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축제의 의미를 함께 나눴고, 문학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정지용 시인의 문학정신과 옥천의 지역문화가 어우러진 축제 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양 문화원 관계자들은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상호 교류와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백촌 김문기 관련 정정보도

월간옥천문화 2026년 3월호에 게재된 「백촌 김문기 추모제향」 관련 기사 중 제향 시작 연도와 관련하여 일부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본지에서는 옥천문화원이 백촌 김문기 추모제향에 참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2007년부터 진행됐다”라고 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 과정에서 지역 유림과 종중을 중심으로 한 추모제향은 2003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촌 김문기 추모제향은 2003년 지역 유림 및 종중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2007년부터 옥천문화원이 참여하여 현재와 같은 지역 문화행사 형태로 발전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자 여러분께 보다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 기록과 역사 정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세계 속 정지용 문학 조명한 국제문학 심포지엄 개최

39회 지용제의 주요 프로그램인 ‘정지용 국제문학심포지엄’이 지난 16일 교동호수 특설무대에서 열려 국내외 문학인들과 관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베트남, 중국, 일본 등 국내외 학자와 문인들이 참여해 정지용 문학의 세계성과 문학적 가치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유성호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정지용의 종교시 편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며 정지용 시에 담긴 종교적 사유와 시적 특징을 조명했다. 이어 고광이 미국 LA재미시인 협회 이사장은 ‘감각의 언어에서 존재의 언어로,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시선으로’를 통해 해외 문학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정지용 문학의 의미를 소개했다.

또한 응웬티히엔 베트남 반랑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장은 ‘한-베 근대시의 향토적 정서: 정지용과 응우옌 빈’을 발표하며 한국과 베트남 근대시의 공통된 정서를 비교 분석했고, 여태천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근대적 의식과 언어의 감각’을 통해 정지용 시의 언어미학을 설명 했다. 김용균 중국 항주사범대학교 한국어학과 학과장은 ‘한중 문화교류에서의 정지용 문학 전파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중국 내 정지용 문학 연구와 교류 현황을 소개했으며, 임현수 일본 오사카 데즈카 야마가쿠인대학교 교수는 ‘언어의 울림, 동요적 리듬, 그리고 기타하라 하쿠슈와의 공명’을 발표하며 한일 문학 교류 속 정지용 문학의 의미를 되짚었다.

이번 국제문학심포지엄은 정지용 문학의 예술성과 세계성을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국경을 넘어 공감받고 있는 정지용 문학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 뜻을 함께 나눴다.



좌측부터 임현수교수, 김용균교수, 여태천교수, 응웬티히엔문화학부장, 고광이 이사장, 유성호교수

새로운 시도로 채운 39회 지용제

올해 열린 39회 지용제는 기존 축제의 틀을 넘어선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콘텐츠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축제 곳곳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지역 대표 문화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이번 지용제에서는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콘텐츠가 새롭게 선보였다. 야간 분위기를 아름답게 수놓은 은하수 조명과 청사초롱, 포토 명소로 인기를 끈 수목 포토존과 지용 캐릭터 조형물, 전통 감성을 살린 짚불공예와 시기둥 설치는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또한 대형 러버덕 전시와 해바라기 조형 연출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감성적인 느린우체통 운영 역시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여기에 화려한 수상 퍼포먼스로 이목을 집중시킨 플라이보드 공연까지 더해지며 축제의 재미를 한층 끌어올렸다. 물 위를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역동적인 플라이보드 시연은 많은 관람객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이번 지용제의 대표적인 수상 볼거리로 자리매김했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관람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까지 더해지며 방문객 만족도를 높였다. 무엇보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 운영을 넘어 “머물고 싶은 축제, 다시 찾고 싶은 지용제”를 만들기 위한 세심한 고민과 노력이 곳곳에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축제 관계자들은 “기존 행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 요소를 꾸준히 발굴하려는 노력이 이번 지용제의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김대훈 문화원장의 남다른 열정과 노력이 있었다는 평가다. 김대훈 원장은 축제 준비 초기부터 현장을 직접 챙기며 새로운 콘텐츠 도입과 공간 연출, 관람객 편의 확대에 힘써 왔으며, 보다 품격 있고 차별화된 지용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 왔다.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들 역시 “올해 지용제는 이전보다 훨씬 풍성하고 활기찬 분위기였다”며 “축제를 위해 애쓴 김대훈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시도와 변화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39회 지용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앞으로의 지용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민예총 옥천지부 장승깎이 행사

전통문화 체험행사, 6월 옥천선사공원에서 열린다.

민예총 옥천지부가 오는 6월 21일 옥천선사공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장승깎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으로, 어린이부터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누구나 함께 참여하며 우리 고유의 민속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자연 속 야외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참가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전통문화를 즐기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 행사장에서는 장승 제작 과정 시연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민예총 옥천지부 관계자는 “전통문화가 어렵고 멀게 느껴지기보다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문화로 다가가길 바란다”며 “많은 군민들이 함께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민예총에서 장승깎기를 준비하고 있다



민예총 장승깎기 행사

충북도립교향악단 공연

충북도립교향악단, 6월 26일 옥천문화원 관성회관 대강당에서 공연 개최

충북도립교향악단이 오는 6월 26일 옥천문화원 관성회관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향유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도립교향악단은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로 다양한 클래식 명곡들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문화공간인 옥천문화원 관성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만큼 군민들이 보다 친숙한 분위기 속에서 클래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평소 클래식 공연을 접하기 어려웠던 주민들에게도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전망이다.

옥천문화원은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주민들이 공연장을 찾아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충북도립교향악단 공연중

서예반

충북 옥천문화원 문화학교 서예반은 2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온 대표 강좌다. 故 一覺 정진영 선생의 지도 아래 시작된 서예반은 한때 30여 명이 참여해 주·야간반으로 운영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서예는 단순한 글씨를 넘어 마음과 인품을 담아내는 예술로, '서여기인(書如其人)'이라는 말처럼 사람의 내면이 글씨에 드러난다.

현재 서예반은 매주 화요일 저녁 운영되며, 올해부터는 南谷 김승애 선생이 지도를 맡아 수준 높은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옥천문화원은 최근 문화공간을 새롭게 단장해 쾌적한 학습 환경도 갖췄다.

서예에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묵향과 인향이 어우러진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손가락 난타반

손가락난타는 스위스악기중에 우리나라 나무손가락이랑 비슷한 리듬악기에서 비롯된 리듬난타 종목이다,

옥천에는 지난 5년전부터 7명의 회원이 마음이 모여 학원에서 배워 지도자 자격증까지 받았다.

그동안 주민자치, 평생학습, 그리고 지금 문화원문화교실까지 동아리반 수업 프로그램에 참여중이다

엄정자강사님과 12명의 회원은 전문적으로 각종 행사에도 참여하며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요양원, 사회단체등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손가락이나 전신 운동에도 아주 좋고 치매예방에도 너무 좋은 손가락난타입니다.



시낭송반

시는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시낭송은 시에 담긴 감정과 의미를 목소리로 표현하여 듣는 이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는 예술입니다.

옥천지용시낭송협회는 우리 고장 출신 시인 정지용의 작품을 중심으로 시를 배우고 낭송하며, 문학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낭송을 통해 자신감과 표현력을 키우고, 따뜻한 문화의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수업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시를 사랑하고 낭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매년 '정지용 전국 시낭송대회'를 개최하여 품격 있는 낭송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어울림(유화반)

20여 년 이어온 문화예술의 배움터, 어울림미술반

옥천문화원 문화교실 소속 어울림미술반(서양화)이 20여 년 동안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유창숙 강사의 지도로 15명의 회원들이 함께 그림을 배우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회원들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각종 공모전 수상과 전문작가·강사 배출 등 꾸준한 성과를 이루며 성장해 왔다.

또한 어울림미술반은 매년 전시회를 개최해 올해로 22회를 맞았으며, 지용제 기간에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사생대회를 운영하며 24년째 지역 봉사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엄정자 회장은 "어울림미술반은 그림을 배우고 재능을 키우는 공간을 넘어 지역문화 발전에 함께하는 문화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화원과 관계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예에 관심있는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묵향과 인향이 어우러진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운동은 몸보다 삶을 먼저 바꿉니다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코치 출신이
함께하는 프리미엄 피트니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움직임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굳어가는 몸을 풀고
무너진 자세를 세우고
하루의 활력을 되찾는 시간

JCgym은 건강한 움직임과
회복을 함께 만드는 공간입니다

-  프리미엄 운동 시설
-  개인 샤워실 & 드라이룸
-  히노끼 찜질방
-  시니어 자세, 체력회복 운동
-  무료 주차

— 문화원 특혜 —
문화원 회원 **15%** 할인
6개월 누적 이용 이후 추가 할인 가능

옥천군민의 건강한 움직임을 위해 JCgym이 함께합니다



JC GYM FITNESS

☎ 010-5368-9667

📍 옥천읍 금장로 25, 3층 JCGYM

🏢 축협 건물 3층



39회 지용제를 마치며 감사의 말씀

39회 지용제를 함께해주신 모든 방문객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임원·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지용제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옥천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의 발걸음은 지용제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으며, 축제를 함께 즐겨주신 여러분의 환한 미소와 응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회원 여러분과 임원·이사님들의 헌신과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사 준비부터 운영, 안내와 홍보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해주신 정성과 협조 덕분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축제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39회 지용제는 정지용 시인의 문학정신을 되새기고, 지역 문화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옥천문화원은 더욱 발전하는 지용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39회 지용제를 찾아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옥천문화원장 김대훈

※월간옥천문화는 옥천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제주도 숙박지원 안내

옥천문화원에서 회원분들의 뜻깊은 하계휴가를 위해
제주도 숙박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숙박 장소** | 제주 호텔 원스토리
-  **지원 기간** | 6월 29일(월) ~ 7월 5일(일)
-  **지원 내용** | 행사 기간 중 2박 숙박 전액 지원
-  **지원 객실** | 1일 10객실 지원 (일별 선착순 마감)
-  **추가 숙박** | 추가 숙박 원할 시 개인 부담
-  **개인 부담** | 숙박 외 항공, 식비, 교통비 등 모든 경비 개인 부담



문의

 옥천문화원
043-733-5588



월간 옥천문화

발행인 | 김대훈 원장
편집·집필위원 | 김모순 위원장, 천기석 위원, 김역수 위원, 정희원 위원
간사 | 옥천문화원 이성욱 과장
창간일 | 2026년 3월 25일
발행처 | 옥천문화원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35
대표전화 043)733-5588 팩스 043)733-8004